

보도 해명 자료

(2010. 12. 31)

수 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 목 : 로봇물고기가 작아 측정기기 등을 탑재할 수 없고, 4대강
수심이 얕아 유영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※ "4대강 로봇물고기 두손 든 환경부"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

1. 보도 요지 (12.31, 한겨레)

- '10.12.31(금) 한겨레신문의 「4대강 로봇물고기」 두손 든 환경부」 제목의 기사에서,
 - 작은 크기로는 측정기기, 통신장치 등을 다 넣을 수 없으며, 현재 가능한 개발크기인 1m 로봇을 투입해도 4대강 수심이 얕아 유영이 곤란하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로봇물고기는 현재 환경부가 운용중인 수질자동측정망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발 중이며, 수요부처인 환경부와 협의, 5개 수질항목(수온, pH, 용존산소, 탁도, 전기전도도)의 측정을 위주로 운용 예정으로서 동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커야 할 필요는 없음
 - 개발예정인 로봇의 크기는 45~50cm, 높이는 약 20cm로서 30cm 이상의 수심이면 운행이 가능함

☎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로봇팀 (2110-5619)